일상 속 참선으로 수행대중화에 일익

창립 10주년 맞은 봉선사 참선반 '선우회'

남양주 봉선사, 10월2일 선우회 10주년 기념법회 "행복 위한 수행" 당부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봉선사 선우회 회원들이 10주년 기념법회서 수행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 신도들로 구성된 참선반 '선우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한국불교계 수행풍토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참선수행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또 때로는 안거에 들며 꾸준한 정진을 이어 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10월 2일 경내 청풍루에서 봉선사 참선반 '선우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10년전 선우회를 창립한 정수 스님, 본사 교구장 초격 스님을 비롯한 봉선사 신도회 이도피안 회장과 10년간 선우회에서 활동했던 회원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초격 스님은 축사를 통해 "봉선사 선우회는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동안거, 하안거와 나아가 각자가 주어진 시간에 수행을 지속해오면서 참선수행을 대중화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며 "불교에서 어떤 것도 수행 아닌 것이 없지만 참선 수행이야말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선우회는 참선수행 뿐 아니라 각종 봉사에도 솔선수범하여 참여해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그간의 활동을 격려했다.

10년 전 선우회 창립을 주도했던 정수 스님은 "하안거를 해인사 선원에서 지냈는데 어릴 적 뵈었던 큰스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부도에 이름 석자만 새겨져 있었다. 이곳 봉선사에 오면 조실스님과 회주스님 등 어른스님들을 뵐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다"며 "한 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특별하지 않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고요하게 간직하면서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참선이란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된다.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마음부터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10년 전 선우회를 발족한 본래 뜻이기에, 항상 고요함 속에 자신을 다스리는 참선수행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봉선사 신도회 이도피안 회장은 "10년 전 시민선방을 열고 손수 지도해주시며 선우회의 기초를 만들어 주신 정수 스님과 선우회가 지금까지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주지 스님. 지도법사스님들께 한없는 고마움을 전한다"며 "참선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잠시 나를 내려놓고 어지러운 마음을 쉬게 해주고,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참선이야말로 우리 신도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이며 행복의 원천이 돼줬다"며 "지난 10년간 참선과 용맹정진으로 참선 수행을 대중화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준 선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수행 정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도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선혜원 선우회장은 "앞으로도 스님들과 신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봉사하고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회주 밀운 스님이 직접 법문했다. 밀운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처음 5비구에게 설법을 하실 때 허공을 가리키며 '진공묘유'라고 말씀하셨다"며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공에도 존재가 있음을 현재의 과학이 밝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께서 본래의 본성 자리는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바로 '불생불멸'"이라며 "본래 본성은 현대과학이 말하는 원소와도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항상 부처님의 '자리이타행'을 본받아 부처님처럼 산소의 근원인 물과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선우회원들은 봉선사 보림선원으로 자리를 옮겨 정수 스님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함께 광릉수목원 숲길을 1시간여 포행하며 지난 10년의 수행을 돌아보고 지속적인 정진을 다짐했다.

환경본찰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 봉행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청우 스님 법문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개산 22년 기념 법회 및 동식물천도재'를 봉행한다.

강릉 현덕사는 개산 이후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기 위해 매년 동식물천도재를 열어오고 있다.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60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9.7%로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동안 버려지는 동물은 12만 8787건으로 식용이나 의료계 실험용으로 희생되는 동물도 상당수에 달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희생된 동식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동식물영가의 위패를 모시고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생명을 잃은 동식물의 영가를 천도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산 기념법회와 3층 쌍탑(雙塔) 봉안식도 진행된다. 3층 쌍탑은 불자 서예가인 솔뫼 정현식 작가(솔뫼서예연구소장)가 탑기(塔記)를 짓고 썼다.

정현식 작가는 탑기에 "탑을 세운 오늘부터 부처님의 광명이 날로 빛나며 법의 바퀴가 쉬지 않고 구르길 기원한다. 지혜가 더욱 빛나고 수승하며 인연된 신도들이 웃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등명낙가사 회주 청우 스님이 법문한다. (033)661-5878

노덕현 기자


현덕사 동식물천도재에서 위령의식을 올리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제3회 광주불교문화사진전시회 개최



광주불교연합회는 10월 1일 제3회 광주불교사진전을 개최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10월 1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제3회 광주불교사진전시회'를 개막하고 사진문화기획단 회원 16명이 참여하는 단체사진전을 진행했다.

8일까지 이어진 사진전에는 회원들이 자유주제로 산사의 풍경, 동물, 반영, 꽃, 가족, 취재현장 등에 걸친 40여 점의 작품을 소개했다. 1일 개막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월인 스님을 비롯해 사진문화기획단장 무진 스님, 윤혜숙 사진작가, 광주사진협회 임원 등이 참여했다.

도성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해의 결실을 보는 가을에 접어들어, 푸르렀던 산과 들이 단풍과 열매로 가득하다. 그런 계절에 사진문화기획단의 결실을 보는 사진전시회를 갖는 것 또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큰 뜻을 깊이 기억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법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진문화기획단은 내년 촬영주제로 '광주지역 사찰의 풍경'을 선정, 차기 사진전을 준비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응공조계종 관음사 보살 수계 법회 봉행

대한불교응공조계종 관음사(주지 경봉)는 10월 3일 관음사서 천수천안관음보살, 신중탱화 점안식과 구족계, 산림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원로의원 홍원 스님, 수덕 스님, 법등 스님과 혜인 스님, 해진 스님, 경암 스님, 원각 스님, 득운 스님, 동화 스님, 지암 스님, 수암 스님 등 소임 스님, 정용영 관음사 신도회장, 문지현 관음회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증명법사 법운 스님은 "관음사 불자들은 모

두가 부처님의 특별한 인연을 맺은 만큼 삼독을 여의고, 삼업을 멀리하는 현명한 불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대성사 창립 54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10월 1일 경내 서원당에서 창립 54주년 기념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춘천 삼운사 주지 월중 스님이 증명법사로 모셨다.

삼운사 주지 월중 스님은 "관음기도도량 대성사에서 어려울수록 더욱 정진해 부처님을 닮아가는 천태불자가 되길 바란다. 봉사하며, 자비실천하는 천태인으로 대비심을 키워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성사 주지 도원 스님은 "누구나 행복의 씨



앗을 심어, 현생과 내생에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한 진정한 복전이 대성사"라고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국 최초 최고불자명품교육기관]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승려연수 인증교육 (줌 화상교육)
과 정 명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 일 정 :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 육 비 : 10만원
• 접수마감 : 10월 14일(목) 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051-711-0700
부산진경찰서
온병원
부암역
서면역
롯데백화점
(신동아빌딩 5층)